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6월 4일 (제1204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다시 뛰어라

주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풍물시장에서 발목이 세 개나 부러진 말 모양의 도자기와 여러 조각이 난 항아리를 발견하고 사 왔다. 집에 와 그것을 강력 접착제로 붙이니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명마의 포즈로 재탄생했고, 항아리도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재생되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이 깊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뛸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이 작품은 달리다가 부러진 명마의 발목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 고치고, 깨진 항아리도 접착제로 붙여서 물을 담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 다시 뛰라는 의미의 작품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뛸면 됩니다."

누구나 달리다가 넘어져 발이 부러질 수 있다. 명마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는 주저앉는다. 발목이 부러졌으니, 그것도 세 개나 부러졌으니 무슨 수로 달릴 수 있겠는가 한다. 그러나 강력 접착제가 있다. 그것으로 붙이면 본래의 모습이 된다. 아니 그전보다 더욱 강력해진다.

우리 인생의 강력 접착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본시 심령과 육신이 부러진 자를 찾으러 내가 풍물시장을 돌 듯 다니시고, 그런 자들을 발견하면 바로 접착제로 붙여 다시 뛰게 하신다. 베드로를 보라. 그는 달리다 발목이 부러졌다. 예수를 세 번 부인했고, 세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주저앉아 살았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강력 접착제로 그의 발목을 성케 하시니 그가 힘차게 다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 낙망치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육신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했을 때 주님을 부르라. 그가 강력 접착제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말이 물을 마시고 다시 달리듯,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를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 달려라.



인생사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발에 콩 씨를 뿌리면 콩이 나고, 팔 씨를 뿌리면 팔이 난다.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말이 곧 씨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뱉은 말, 행동은 그렇게 뿌린 대로 자라나게 된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주제로 인생사의 모든 일들은 스스로 뿌린 결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명료합니다.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것이 최고라 하지 않습니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안 믿으

오늘 하나님께서 역시 단순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17:13). 선을 악으로 갚지 말란 겁니다. 당신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당신의 집안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집안에 되는 꼬라지가 없고 파헤해진다는 경고입니다.

그럼 누가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맞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대명사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기야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리를 공격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나, 결국 그 아들이 죽어서야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집안에 피와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들여보낸 궁녀를 다윗이 쳐다보지도 않은 것은, 그가 밋세바 사건의 후과(後果)를 얼마나 몸서리치게 뺏속까지 경험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가 뿌린 죄악의 열매는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업자득(自

거짓을 심고 진실을 딸 수 없고

악을 심고 복을 거둘 수 없다

봉우 이초석 목사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면 지옥이다. 너무나 간단한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경험을 통하여 부모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범하고 이를 완전범죄로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한 다윗의 범죄는 그야말로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죄도 부족하여 이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맹렬한 전장으로 보내 죽게 하였으니 말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덮으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 치하하고 집에 가서 쉬라 하였으나 그는 전장에서 노숙하는 전우들을 생각하고,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집에 가지 아니할 정도로 충성된 신하였습니다(삼하11:8~11).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 교사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앗은 거둬야 했으니, 자녀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급

業自得)인 것ですよ.

어디 다윗뿐입니까?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진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친 사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믿어 돈케까지 맡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의 비참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명료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겠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면 그 약속대로 피눈물 나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영멸의 지옥으로 보내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대구 엑스코 집회

6월 6일 오후 3시 (엑스코 동관 4홀) 문의 02. 533. 9191, 053. 552. 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8:1~8)



자존심을 버린 자들의 결과를 보라

영등이에 종기가 난 여자 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하자 남자의사인 터라 두 여자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치료해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망측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병원을 나왔고, 종기가 악성으로 발전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오장육부를 빼내면 세상 살기가 아주 편하단다. 오장육부 빼내고 가서 빌어. 가서 도와달라고 해.” 맞습니다. 오장육부, 즉 자존심만 빼내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살아보니 자존심이란 것이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짓밟힐 때마다 그것을 사다리 삼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라

제가 목회자 아주 쉽다고 말하지요? 솔직히 말처럼 쉬웠겠습니까만, 일찍이 자존심을 기도원에 만들어놓은 가묘에 물어버렸더니 말대로 쉽습니다. 잘못했으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고,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조아렸더니 얽힌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뭐니까? 자존심이란 스스로 자(自), 높을 존(尊), 마음 심(心)으로,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남에게 굽히지 않고 늘 꼴꼴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 번도 좌회전,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으로만 운전하여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를 보세요. 그 과부에게는 억울한 사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풀어줄 만한 인물을 찾다가 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재판관은 사람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힘 없고 돈 없고 뺨 없는 과부를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그녀라고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래도 과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런 재판관도 과부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는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사는 여인입니다. 자존심이라면 누구 못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

은 그녀는 물어 물어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치료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 하셨습니다. 개 취급하며 경멸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안 고쳐주면 되지,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라고 답했습니다.

‘자식이 낮기만 한다면 내 자존심이 무슨 대수냐?’ 한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직전인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코자 저에게 상담을 했고, 이야기 끝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돈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안 좋은 사이인데 한 번에 “그래, 빌려줄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했겠지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찾아가 강청했고, 그러면서 서서히 상대의 마음이 열려 부도를 막을 만큼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잘했다 잘했어.” 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회생하여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존심 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도 자존심을 사다리 삼아 한 계단 성장한 것입니다. 코스타리카 집회를 마치고 루이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대통령은 저에게 “이번에 UN 총회에 가는데 어떻게 해야

국가를 살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선진국에 도와달라고 하시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고 불 일입니다. 사회주의국가라고 제외시키지 말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으십시오. 대한민국도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며 차관을 들여오고 원조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우리를 36년 동안 강점했던 일본에게도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한 국가의 자존심,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자존심을 버리고 유

학을 시절 쌓아둔 인맥들에게 하소연해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존심, 자존감은 대단합니다. 일단 잘 살고 보십시오.”라고 말해줬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렘 16:6). 일단 살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야 후일이 있으니까요. 인격적으로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말해 자존심이 짓밟혀도 일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해외 집회를 하러 가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거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로 가시냐 물으면, 때론 그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빌려 갑니다. 자존심은 대한민국에 두고 갑니다. 국가를 살리고 봐야죠. 일단 기업을 살려놓고 생각해야죠.” 합니다. 내 자존심 다 쟁기고, 내 체면 다 살리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버려야 한다면 당연히 자존심을

버려야죠. 그게 지혜요, 합당한 처사입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납작 엎드려 빌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쟁기다가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치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모든 소유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삼상15:15).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사울은 자존심 쟁기기에 바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찌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15:30). 하나님이 버렸는데, 폐위한다는데 이 상황에 자존심을 쟁기고 있으니... 그의 비참한 말로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자존심은 순간이나 꿈은 영원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놓고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요. 돈 주고 팔아먹은 사람이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죄를 사함받고 은총을 입어 수제자로 거듭났고, 가룟 유다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살해서 끝날 일이면 좋겠지만, 내세가 있으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잘못해서, 부정한 일을 벌이다 그것이 들통나면 자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그런지 압니까? 자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뭐라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성공의 걸림돌입니다. 그것을 빼버리세요. 그것에 걸려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보리떡을 구하러 간 자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자존심을 버려 목적인 바를 성취하세요.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문제를 맞서는 자세

경험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는 한 개인만의 이야기 아니다. 한 사회에도, 국가에도, 나아가 전 지구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대의 문제와 맞서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지식과 문화가 형성되는 이유이다.

20세기를 괴로 물들인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 중동전쟁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수한 자연재해 등,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연구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극복해야만 하는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그로 인해 노심초사하지만, 어떤 이는 이에 걸려 넘어져 재기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는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성공의 이야기를 써가기도 한다. 전쟁과 폭압을 이겨 오늘에 이른 우리 역사가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부딪쳐보지도 않고 두려워 떨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군대에 맞서 진을 친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보고 영혼이 녹아내리는 공포에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 가나안을 정복했던 조상들의 노하우, 곧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조상들의 신앙이 있었음에도 당장 눈앞에 펼쳐진 너무도 커다란 문제 앞에 머리가 하얘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적으로 무장되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목장에서 많은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사자,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뿔 돌 투척 기술을 무수히 연마했을 터이고, 그렇게 맹수들을 제압하고 양을 되찾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다(삼상17:34~37). 재빠른 맹수들조차도 물뿔돌로 맞추는 실력에 그저 떡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 정도야 아주 공략하기 쉬운 큰 표적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까지 더하니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승리의 경험은 일단 맞서 싸워봐야 터득되는 것이다. 때론 문제가 풀리지 않아 전전긍긍할 때도 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기도하며 달려들면 넘지 못할 벽이 있겠는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 도전하는 거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라 하지 않나.

문제를 표적으로 바라보자. 문제가 크면 표적이 크다는 이야기다. 경험한 승리의 자신감으로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물뿔돌을 문제를 향해 던져라. 표적이 크니 더 잘 맞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표현하라

여보게!
자네, 이 노래 아는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음~~~ 안 그런 척했더래요.”

2절 가사를 보면 갑순이가 시집을 가는 내용이 나오네.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뿐이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야. 왜냐면 갑돌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니까 사랑하는 줄 모르고 부모가 맺어준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야.

그런데 3절에 보면 갑돌이도 다른 데로 장가를 갔다고 나오네. 왜냐? 갑순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갑돌이는 갑순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기다렸거든.

여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인색한 말이 있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야. 체신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유독 이런 말을 아끼지.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굳이...” 그러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그건 내 생각이지, 상대는 말 안 하면 절대 모르거든. 갑순이도 갑돌이도 말

을 안 하니까 모르더라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라네. 노래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듯, 믿음이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듯 사랑도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네. 돈이 지갑에서 나왔을 때 힘을 발휘하듯 사랑도 마음에서 입으로 나왔을 때 사랑의 힘이 발휘되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가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셨던 거야.

아내가 “나 사랑해?” 하고 물거든 “다 늙어서 무슨 사랑~” 그러지 말게. “다 알면서 뭘 물어.”라고도 하지 말게. “당연히 사랑하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지.”라고 말해주게. 과장인 줄 알지만, 그 말에 아내가 행복해한다네.

집안에 갈등이 있는가? 집이 삭막한가?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게. 말로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 글이라도 쓰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일이 전개될 것이네. 내가 장담하네.

봉우

:: 책을 펴다 ::

속지 마세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던 사람이 밤이 되자 텐트를 쳤다. 사막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몹시 추웠다. 밖에 있던 낙타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정말 추워서 그러는데 코만 텐트 안에 넣게 해주세요.” 주인이 흔쾌히 허락하자 코를 넣고 있던 낙타는 다시 말했다. “주인님, 얼굴을 다 넣게 해주세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얼굴을 텐트 안에 넣고 있던 낙타는 다시 청했다. “주인님, 텐트 안이 꽤 넓은데 앞발을 더 넣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주인이 허락하자 잠시 후에 낙타는 “뒷발만 들어오면 되는데...” 하며 간청했다. 주인은 거절할 수 없어 이것마저 허락했다. 낙타가 들어오자 텐트 안은 너무 비좁았다. 이리저리 몸을 틀던 낙타가 말했다.

“주인님, 텐트가 비좁으니 좀 나가 주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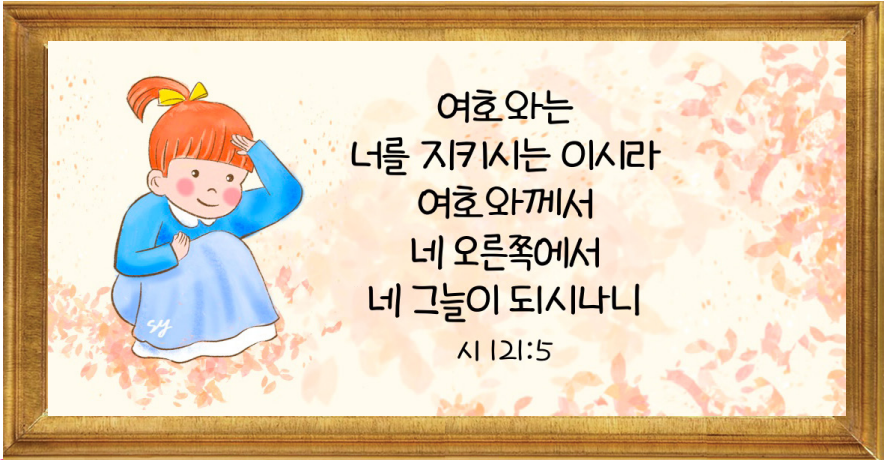
으면 합니다.”

주객전도(主客顛倒)다. 악한 것들은 처음부터 크게 들이대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점차 우리 안에서 영역을 확보하고 결국은 주인이 되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고로 죄와 악은 애초부터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작은 요소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물방울이라고 그냥 두면 결국 바위가 패는 것처럼 작은 것을 묵과하면 큰일을 초래할 수 있다. 낙타에게 텐트를 내주고 마는 우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악한 것들이 주인이 되지 않으려면 최악의 작은 여지라도 처음부터 용납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5:22).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내 마음의 운전사는 누구인가?

현대사회는 금전 만능주의, 외모 제일주의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 보면 안 예쁜 사람이 없다. 또한 도로 위 자동차들을 보면 고가 자동차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자동차는 고급인데 운전자가 비매너운전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외모는 영화배우 뽀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폭언과 비방, 그리고 부정의 말뿐이다.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고, 좋은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누가 운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는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셨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귀신이 잡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했다(요일3:12). 귀신이 운전하니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사울 왕도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는 불행한 삶을 살다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멸망하는데,

그 원인 역시 귀신이 운전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소형 자동차보다 고급 자동차를 타면 훨씬 편안하다. 그러나 고급 자동차를 타는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천국이다.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속담도 있으나, 필자는 사람이 반찬임을 깨달았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김치, 깍두기 하나에 밥을 먹어도 기분 좋고,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된다. 그러나 보기 싫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진수성찬임에도 맛이 없고 체할 거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밥맛 없는 사람’이라 한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자. 성령님이 운전하시면 항상 복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니 내가 좋은 반찬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임택함 목사

:: 간증 ::

:: 글쓴의 주님 ::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현재 평택 비전예수중심교회에 다니는 성도 백기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거하고 싶어서 이 글을 꾸밈과 거짓 없이 적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3세에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다는 꿈과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미국에 혈혈단신으로 취업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일을 겪으며 미국 육군에 입대했고, 현재는 미8군 산하에 있는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미군입니다. 저의 보직은 보병이고 현재는 의장대에서 일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성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해주신 기적, 이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촌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는 건 정말이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생활도 열심히 해서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경에 저는 특수임무요원이 되고 싶어서 미국의 특수전 사령부가 있는 포트브래그로 선발과정을 치러 갔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매일 밤 운동을 마치고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심지어 눈이 와서 도로가 얼어붙어도 저는 차를 끌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4일 동안의 선발과정을 치르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신체, 동기평가 등 모든 것들은 다 충족되었지만, 영어가 조금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영어가 제2의 모국어인 저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후, 저는 낙담과 낙심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저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와서 낙심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저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대에서 생활하던 중 우수보병휘장(expert infantryman badge) 시험이 이번 4월에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휘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30개의 의무화기 정찰학 과목이 있는데, 나흘 동안 치르는 시험에서 한 과목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이 휘장은 내가 보병이라는 한 주특기 분야에서 모든 것을 마스터했고 최정에 전투요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휘장입니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15%입니다. 이번 한국에서 열린 시험에는 1,100명이 도전했는데 한국군을 뺀 미군 중에 190명 정도만이 휘장을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기도모쪼록 이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1주일이라는 연습 기간을 마치고 나머지 4일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10가지의 무기 분해조립, 기능처치, 둘째 날은 부상자 응급처치, 대망의 셋째 날은 모두가 어렵다는 10가지 과목이 있는 정찰학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찰학에 있는 지도분석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 과목에선 지도상에서 후방교회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의 위치를 알아내어 그곳 좌표를 얻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좌표를 구할 때 단 1이라는 숫자도 틀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나침반으로 방위각을 쏘 때에도 단 1도라도 차이면 바로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시험

을 보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다른 군인들은 줄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조차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마음속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으로 총알같이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꼭지 끼고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떨어져요. 29개 과목을 다 통과하고 이곳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전 죽어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서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지만 훗날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왜소하고 키도 작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약한 제가 이렇게 강해지고, 빨리 오래 달리고, 무거운 것들 많이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한국 촌동네의 촌놈이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미국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민권을 얻고, 군대에 입대해 공로를 인정받고, 많은 훈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최정에 보병휘장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지도 못할 것을 바라보고 불가능에 많이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 표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쓴 이 글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비전예수중심교회 백기담 성도

:: 프롬인터넷 ::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웃한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넓은 초원에 많은 염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옆 집에는 사냥꾼이 사냥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는 종종 옆집 울타리를 넘어 염소를 공격했습니다. 그걸 본 염소 주인은 사냥꾼에게 개를 가워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사냥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며칠 후 사냥꾼의 개는 또 농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었고, 염소 몇 마리를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염소 주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마을의 치안판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염소 주인의 사연을 들은 판

사는 “사냥꾼을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사냥꾼에게 개를 가두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친구를 잃고 적을 한 명 얻게 될 겁니다. 적과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친구와 이웃이 되고 싶으신가요?” 염소 주인은 “당연히 친구와 이웃이 되고 싶죠.”라고 답하자 판사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새끼 염소 3마리를 골라 사냥꾼의 어린 세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사냥꾼의 아들들은 염소에 폭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염

소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사냥꾼의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당의 개가 어린 염소를 물어서 해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사냥꾼은 개를 큰 우리에 가둬했습니다.

염소 주인도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이후 사냥꾼은 사냥한 것들을 그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염소 주인도 사냥꾼에게 염소 우유와 치즈로 보답하였고, 그 후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이웃이자 친구로 지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옷을 보면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옷이 낱개’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색깔과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돋보이기도 하고 품위가 저하되기도 한다.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자동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지는 동시에 동전놀이(짚짚이)로 천박해진다. 그런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으면 입담이 걸쭉하던 사람도 말을 점잖게 하는 신사가 된다. 이렇게 옷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 옷의 역할과 비중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된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처음으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지금도 이태리 모피로 만든 옷이 고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최상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다. 사람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며 품질 좋고 값비싼 옷을 좋아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명품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고,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은 물론 가죽옷이겠지만 가죽옷보다 더 좋은 옷이 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다. 이 옷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입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니 이제는 가죽옷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좋은 옷을 입으면 행동과 언행이 반듯해지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언행이 그리스도의 언행으로 바뀌게 된다. 예수님의 비유, 아들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말씀이 있다. 비유 말씀에서 예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롬13:14)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서야 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 하심같이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루신 의를 힘입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승효 목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